

광주·전남 농지연금 가입자 9년만에 18배 늘었다

2011년부터 누적 가입자 2205명
지난해 65~70세 118명, 40% 차지
월 수령 62만원...전국 평균 못미쳐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수령하는 농지연금 가입자가 광주·전남에서 지난 2011년 도입된 뒤 9년 새 18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을 운영하는 한국농어촌공사는 광주·전남 99억원을 포함해 총 1809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이 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다. 13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주·전남지역 농지연금사업 누적 가입 건수는 2205건으로, 지난 2011년(120건)의 18.4배(1737.5% ↑) 수준으로 늘어났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난 2011년 도입됐다. 지난해까지 전국 누적 가입은 1만7098건으로, 광주는 전국의 12.9%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인천·경기 비중이 24.9%(4258건)으로 가장 크고, 대구·경북(13.9%), 대전·세종·충남(13.7%) 광주·전남, 전북(11.6%), 부산·울산·경남(10.5%), 강원(6.3%), 충북(5.5%), 제주(0.9%) 순이었다. 광주·전남 신규 가입자 수는 도입 첫해인 지난 2011년 120건 이후 250건(2012년)→126건(2013년)→119건(2014년)→136건(2015년)→191건(2016년)→292건(2017년)→324건(2018년)→377건(2019년)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농촌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신규 가입이 100건 가량 줄어든 270건을 기록했다. 전국 신규 가입은 2606건으로, 전년(3209건)보다 603건(-18.8%) 감소했다. 도입 이후 9년 동안 대구·경북 가입 건수는 95건에서 2375건으로, 25배(2400%) 늘어났다. 부산·울산·경남이 24.8배(72건→1789건), 전북 20.6배(96건→1979건), 충북 20배(47건→941건), 대전·세종·충남 18.7배(125건→2335건), 광주·전남 18.4배(120건→2205건), 서울·인천·경기

15.8배(270건→4258건), 강원 14.7배(73건→1070건), 제주 11.2배(13건→146건) 등 9개 지역 가입이 평균 18.8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전국적으로 농지연금의 평균 가입연령은 74세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자 296명을 연령대별로 나눠보니 65~70세가 118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71~75세' 25%(75명), '76~80세' 21%(64명), '81~85세' 10%(28명), '86~90세' 3%(9명), '91세 이상' 1%(2명)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전남 농업인들이 매달 받는 농지연금 지급금은 지난 9년 동안 14.7%(8만원) 올랐지만, 낮은 땅값 때문에 전국 월 평균 지급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총 지급액은 6647억원에 달한다. 광주·전남지역 10개년(2011~2020년) 평균 월 지급금은 44만1939원으로, 전국 평균 92만9113원의 47.6% 수준에 머물렀다. 제주 지급금이 15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인천·경기(142만원), 강원(105만원), 대전·세종·충남(102만원), 부산·울산·경남(95만원), 충북(91만원), 대구·경북(68만원), 전북(48만원), 광주·전남(44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월 지급금은 지난 2011년 98만원에서 지난해 108만원으로, 10.1%(10만원) 인상됐다. 제주는 무려 81.9%(104만원→189만원) 올랐고, 부산·울산·경남 67.1%(75만원→125만원), 대구·경북 48.4%(64만원→95만원), 강원 44.5%(99만원→143만원), 광주·전남 14.7%(54만원→62만원), 전북 14.3%(45만원→51만원), 충북 10.0%(89만원→98만원), 대전·세종·충남 4.9%(106만원→111만원) 인상됐다. 서울·인천·경기만 152만원에서 142만원으로 6.4%(-10만원) 줄었다. 광주·전남 10년 간(2011~2020년) 누적 가입 가운데 509건이 해지하면서 해지율은 22%를 나타냈다. 해지한 사례 가운데 34.2%에 달하는 174건이 가입자 사망이 사유였다. 절반 가까이(46.6%)는 농지를 사고 팔기 위해서 농지연금을 해지했다. 이어

농지관리위반·지급만료 등 기타 사유가 98건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전(밭)·답(논)·과수원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연금액은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월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정해진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으로 나뉜다. 공사에 담보로 제공한 농지로 계속 농업을 유지할 수 있다. 농지연금을 받는 동안 담보로 제공한 농지의 6억원 이하까지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농지연금지킴이통장을 이용하면 월 185만원까지 제3자의 압류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지은행포털(fbo.or.kr)이나 가까운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해양에너지' 맥쿼리로 넘어가나

광주·전남 도시가스 공급 업체
사모펀드와 경영권 인수 협상

시민단체, 광주시에 시민자산화 촉구

맥쿼리자산운용(주)가 광주시 전역과 전남 8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해양에너지 인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는 8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여 해양에너지 지분을 100% 보유한 사모펀드 측은 이번 매각으로 2000억원이 넘는 차익을 거둬들일 것으로 보인다. 13일 해양에너지(대표 김형순)에 따르면 맥쿼리자산운용이 국내 사모펀드(PERF)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PE)가 보유한 해양에너지 경영권 인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집합투자업자인 맥쿼리자산운용은 글랜우드PE 측이 보유한 해양에너지와 서라벌도시가스(경주) 지분 모두를 인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글랜우드PE는 2년여 전 GS에너지로부터 해양에너지를 인수할 당시 설립한 투자목적회사(SPC)인 코리아에너지홀딩스를 통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해양에너지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금은 800억원이다. 경북을 기반으로 한 서라벌도시가스를 포함한 인수가 약 8200억원으로 알려졌다. 글랜우드PE는 2018년 말 GS에너지에서 해양에너지와 서라벌도시가스를 약 6000억원에 인수해 약 2000억원의 투자차익을 올리게 됐다. 지난 1982년 5월 11일 설립된 ㈜해양에너지는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에 본사를 두고 있다. 광주 전역과 나주시·화순군·장성군·영광군·담양군·해남군·함

평군·장흥군 등 전남 8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가스유통 판매, 가스공급시설 시공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으로 영역을 넓혔다. 맥쿼리자산운용은 도로 및 철도와 항공, 도시가스, 폐기물처리업체 등 아시아 인프라 투자로 유명한 호주 기반 운용사다. 지난해 초에는 MBK파트너스로부터 2조원 규모 대성산업가스를 사들였다. 지역에서 독점적 도시가스 공급권을 보유하고 있는 해양에너지의 영업이익은 글랜우드가 인수했던 2018년 165억원에서 2019년 216억원, 지난해 225억원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해양에너지 관계자는 "해양에너지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지만 확정된 바는 없다"며 "해양에너지는 인수를 희망하는 맥쿼리 측에 안정적 경영 유지를 위한 고용 보장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해양에너지는 162명의 정규직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자치21은 이날 "광주시는 해양도시가스의 맥쿼리로의 매각을 막고, 적극적으로 해양도시가스의 시민자산화에 나서야 한다"라는 제목의 긴급 성명을 내고 맥쿼리의 인수를 막고 광주시가 가스 공급 회사에 대한 시민자산화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맥쿼리는 광주시 공무원과 관련자들을 급전과 이권으로 포획하고 시 지원금을 챙겨가며 제2 순환도로를 세금 먹는 하마로 만든 악덕 기업"이라며 "사모펀드는 매년 해양에너지에서 127억이라는 돈을 배당받고 인수 3년이 되지 않은 사이에 시세차익 2000억원을 내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 1일 6대 공공요금 가운데 하나인 도시가스 공급비용산정을 앞두고 있다. 광주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도시가스 소비자가 요금을 동결해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송중욱(오른쪽) 광주은행장이 13일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에 공익통장 '넋이'의 수익금 2000만원을 전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5·18 공익통장 '넋이' 판매 수익금 2000만원 5·18 기념재단 기탁

광주은행이 5·18 공익통장 '넋이'를 판매한 수익금 2000만원을 5·18 기념사업에 내놓았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13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 5·18 기념재단을 찾아 정동년 5·18재단 이사장에 '넋이 통장' 수익금 일부를 전달했다. '넋이' 5월, 그 날을 기억하며(이하 넋이통장)는 지난해 12월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출시됐다. 지난달 말 기준 '넋이통장'의 전용 상품 '넋이에금'은 6624좌, '넋이적금'은 6073좌의 판매고를 올렸다.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판매되는 '넋이통장'의 수익금의 일부도 5·18 기념사업을 위해 쓰여진다. 넋이통장에는 5·18 당시 마지막 항쟁지였던 전남도청과 광주은행 본점 자리에 있던 시외버스 공영터미

널, 국립 5·18 민주묘지, 5·18 민주광장, 전일빌딩 등 5·18 사적 모습이 표지와 속지에 실렸다.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우대 금리도 제공해왔다. 송중욱 은행장이 1호 가입자로 나서고 이용섭 광주시장이 동참하면서 지역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송 행장은 "우리지역의 역사적 순간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넋이 에·적금'에 많은 성원을 보내준 고객과 지역민에 진심으로 감사의 전한다"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항상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 현안에 공감하고, 지역민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 광주은행의 신념이다. '넋이 에·적금'과 같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전남 해상풍력 발전 사업 가격 경쟁력 확보 등 필요

한은 광주전남본부 지역경제포럼

전국 해상풍력 잠재량의 40% 가까이 차지하는 전남이 해상풍력산업 성공을 거두려면 전문인력을 키우고 제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 등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난 12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 지역경제포럼 '전남 해상풍력산업의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담겼다. 주제 발표에는 조석훈 전남도 해상풍력산업과장과 강금석 전력연구원 재생에너지연구실장이 나섰고, 지정 토론에는 전우영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이정관 전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 이기운 녹색에너지연구원 해상풍력지원센터장이 참여했다. 발표에서는 "전남의 해상풍력 잠재량은 12.4GW로 전국 37.3%를 차지하지만 국내 해상풍력 설치 용량은 전세계의 0.5%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해상풍력 개발의 약점으로 꼽히는 공급망 및 사업경쟁력 부족, 대형 사업자 부재, 개발지역 및 간접비용 증가에 따른 사업불확실성 증대 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는 2030년까지 48조5000억원이 투자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122.11 (-39.55)
↓ 코스닥	951.77 (-15.33)
↑ 금리(국고채 3년)	1.123 (+0.002)
↑ 환율(USD)	1129.30 (+4.60)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익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